'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 - 2월의 책 '이솝 우화 전집'

2500년전 그리스인 지혜, 이야기로 전해지다

논증이나 논변에 빠지는 사람보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영혼이 한 뼘 더 높다. 이야기가 논변보다 시에 가깝기 때문이다. 치밀하게 짜진 논변의 숲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잃는다. 누구나 이정표가 없는 곳에서는 요동치고 떨린다. 요동치고 떨려보라.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정표도 하나 없이 많은 공터가 허용되어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다. 거기서는 도란도란 대화가 열린다. 어떤 규제도 없다. 길도 없다. 당신은 거기서 길을 찾지 마라. 길을 내려는 자신이 보일 것이다. 자신이 궁금하면, 논증하지 말고 이야기하라. 아주 오래전에 이솝이란 사람이 펼쳐놓은 이야기 숲에서 길을 잃어보자.

〈'이솝우화'를 선정하며〉

배 고픈 여우 한 마리가 포도송이를 발견했다. 하지만 나무를 기어 올라가야 하는 포도덩쿨에 달려 있어 포도를 따지 못했다. 여우는 그 자리를 떠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아직 익지도 않은걸, 뭐."

'여우와 신포도'로 많이 알려진 이 이야기는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숱한 이야기 중 한 편이다. 몇줄 안 되는 이 짧은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뜨끔하게 한다. 아마 책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솝우화 몇 편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는 북풍과 햇님의 싸움이라든지, 시골 쥐와 도시 쥐 등등.

철학자 최진석과 함께하는 '책 읽고 건너가기-광주일보와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2월의 책으로 이솝의 '이솝우화전집'이 선정됐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의 일상적인 삶과 그들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담은 '이솝우화집'은 원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었다. 성인들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겪은 여러 경험과 삶의 지혜를 재치있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전되며 수집된 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솝과 그의 우화를 연구하기도 했고, 소크라테스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감옥에서 이솝우화들을 노래 가사로 바꾸는 시도를 했다고 전해진다.

성인 일깨우기 위한 600여 이야기
여우·사자 등 동물 통해 교훈 전해
고명환과 마지막주 수요일 북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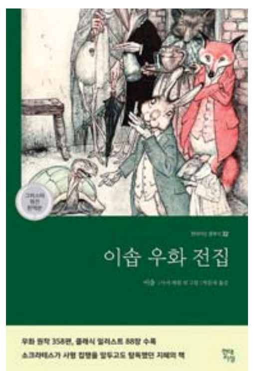
이솝의 우화들은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기록한 것이라 이솝이 직접 쓴 우화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솝 우화의 수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적게는 몇 십 개에서 많게는 600개로 추정된다. 각 이야기에 짤막하게 적힌 교훈 역시 후대인들이 쓴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현대지성' 판 '이솝우화'를 펼치면서 "이솝우화집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릴 적 읽은 '이솝 우화'는 몇 십편이었던듯 한데 이책에 실린 이야기는 '358편'이다. 또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익숙한 이야기부터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스토리가 등장한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찮게 여겨서는 않된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독수리와 쇠똥구리'나 거짓말이 판을 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해 한탄하는 '나그네와 참말' 등 '이솝우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 폭이 넓었다.

저자 이솝(Aesop)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설도 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저서 '역사'에서 이솝은 실제 인물이라고 말하며 그리스 도시국가 사모스 섬 사람 이아드몬의 노예였으며 델포이 사람들에게 살해당했다고 적고 있다.

'이솝우화전집'은 다른 고전과 달리 성인용 번역본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10월 '현대지성' 시리즈로 나온 번역본에는 영문판 대신 박문재 번역가가 고대 그리스 원전에서 직접 번역한 358편의 우화가 담겼으며 19세기 유명 삽화가 아서 래컴 등이 그린 일러스트 88장도 함께 담겨 있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등을 그리스어 원전에서 옮긴 박문재는 "이솝우화의 세계는 야만적이고 거칠며 잔인하고 자비나 동정이 없다. 이솝우화는 동물 세계와 인간 세상 모두에 정글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동물 이야기를 통해 인간 세계를 묘사하는것이 적절했을 것"이라며 "플라톤을 비롯한 고전 저술가들과 달리, 이솝우화에는 귀족이나 지식인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 살다간 평범한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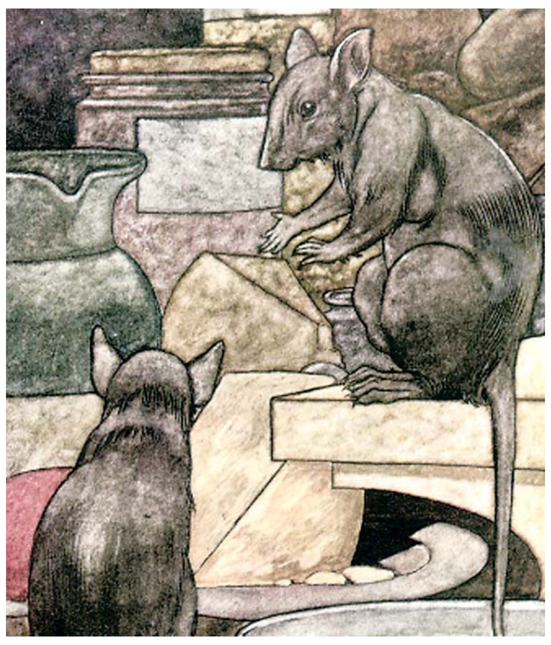


지난 2003년 1판이 나온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시리즈 '이솝 우화집'은 모두 207편의 이야기가 담겼다. 문학평론가 유종호가 번역했으며 영국 펭귄판을 원본으로 한다.

최진석 교수는 책 선정 이유를 통해 "오래 전에 이솝이란 사람이 펼쳐놓은 이야기 숲에서 길을 잃어보자. '이정표를 따라 길을 찾는 대신' '길을 내려는 자신'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짧은 이야기에 어떤 의미를 담느냐는 독자의 몫. 각자가 '길'을 만들아가 보자.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책 읽는 개그맨' 고명환 씨와 최교수의 '북토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토크 내용은 광주일보와 새말새몸짓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 2월 셋째주에는 최 교수가 읽은 '이솝우화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현대지성 출간 '이솝우화 전집'에 실린 '시골쥐와 도시쥐'

이준성 바이올린 독주회

8일 금호아트홀

이준성〈사진〉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바이마르 국립음대동문화,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동문회 등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버의 '파사칼리아',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타나 3번' 등을 들려준다.

이날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서현일이 협연자로 오른다.

전주예고 재학중 독일로 건너간 이 씨는 바이마르 국립음대를 수료하고,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이후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 연주활동을 펼쳤으며, 한국에서는 프라임 필하모니 객원수석, 강릉시향 객원 부수석을 역임했고, 현재 콰르텟 노이 리더로 활동 중이며 광주예술영재교육원에 출강하고 있다. 전석 2만원. 문의 010-6331-683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2월호

예향

영산강 유역 '잃어버린 역사, 마한을 깨우다'
생태수도·미식도시 '순천'으로 남도 한바퀴

오는 6월부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마한(馬韓)을 비롯해 가야, 탐라, 백제, 신라, 고구려 등 6개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함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2월호가 준비한 특집은 '잃어버린 역사, 마한을 깨우다'다. 영산강 유역 마한의 역사는 남도의 뿌리다. 하지만 사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새로 발굴되는 유물로 마한사가 퍼즐처럼 맞춰진다. '잃어버린 왕국' 마한의 역사적 위상과 함께 광주·전남에 산재한 관련 유적·유물을 살펴보고, 임영진 마한연구원장의 제언에 귀를 기울인다.

이달에 만나볼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이광식 천문학 작가다. "우주에서 인생을 배운다"는 그는 인문학적 시각에서 별과 우주, 인간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최근 '50, 우주를 알아야 할 시간'을 펴낸 작가의 우주와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겨울의 끝자락 2월,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때다. '싸목싸목 남도 한바퀴'는 '대한민국 생태수도'이자 '미식의 도시' 순천으로 향한다.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을 품은 순천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됐다. 순천의 생태는 여행자에게 위안과 용기, 힐링을 안겨준다. 자연이 주는 식재료가 가득한 '맛있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순천의 겨울을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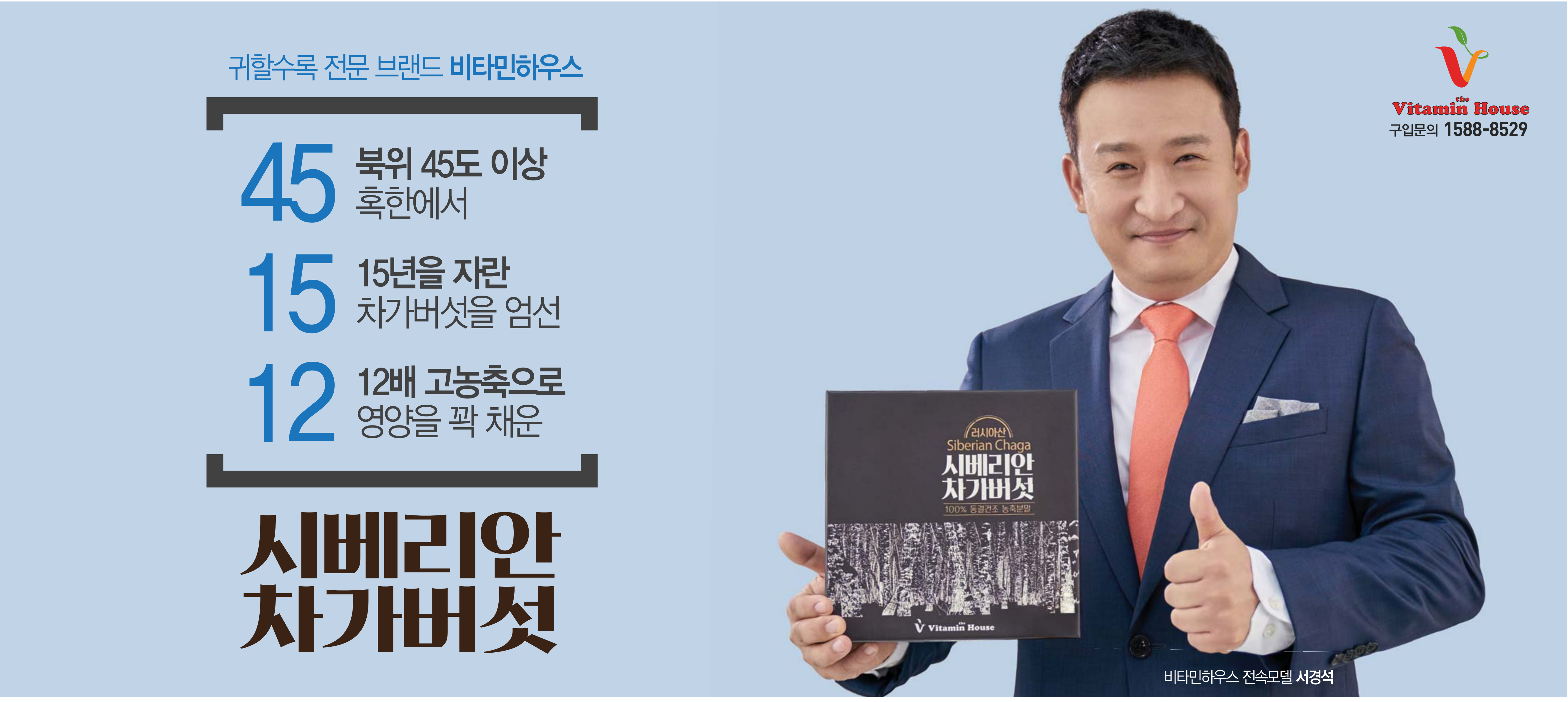
'클릭, 문화현장'은 강진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떠오른 강진미술관·박물관을 다녀왔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사의재와 강진만이 내려다 보이는 보은산 언덕에 자리한 강진미술관·박물관(관장 김재영)은 지난 2018년 10월 개관 이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유일의 한옥미술관으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미술관의 모든 것을 담았다.

문청들의 열기가 뜨거웠던 신춘문예 시즌이 마무리됐다. 광주일보 문을 두드린 작가 지망생들의 도전 열기는 올해도 후끈했다. 202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주인공인 된 김정숙(소설), 이서영(시), 김효진(동화) 신예 작가들을 만나 문청 시절의 이야기와 슬럼프 극복요령, 당선 소감 등을 들어본다.

광주일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물 '살고 싶은 집, 이야기가 담긴 집'은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건축가의 설계를 통해 새롭게 지은 집부터 한옥, 농가 등 기존 형태를 개조한 집, 건축주가 직접 지은 집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집을 자유롭게 소개한다. 프롤로그 '당신은 어떤 집을 꿈꾸나요?'로 문을 연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 시리즈는 글로벌 시티 서울의 랜드마크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로 안내한다. 개관 초기 정체불명의 우주선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독특한 외관과 주변과의 조화성으로 국내외 건축계로부터 뛰어난 건축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우리 땅 우리 문화'는 임란 민초의 고통을 품은 부산 동래읍성 이야기다. 일제 강점기에 성벽이 철거되었다가 남은 성곽을 중심으로 일부가 겨우 복원된 동래읍성의 숨겨진 과거로 들어가본다.

프로야구 데뷔 14년차 KIA타이거즈의 새 캡틴이 된 나지완과의 인터뷰도 기대된다. 2008년 타이거즈 역사상 첫 개막전 '신인 4번 타자'로 데뷔 타석에 섰던 그는 이듬해 2009년 KBO 피날레를 장식하는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을 터트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0년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주인공으로 그라운드를 돌기도 했다. '캡틴' 나지완의 각오를 들어본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